



出版의 最終目標은 圖書館 機能의 擴大에

大韓出版文化協會長 韓 萬 年

尊敬하는 李 璉根大會長님 그리고 圖書館界 發展을 위하여 恒常 苦心하시며 努力하시는 여러 분앞에 먼저 出版界를 代表하여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분께서 해마다 이와 같이 全國圖書館大會를 開催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圖書館活動이 새롭고 堅實化되며 또 이로 因하여 國民의 理解度가 날로 깊어져 간다는 것은 圖書館의 앞날을 위하여 眞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圖書館界 人士 여러 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出版史上 特記할 出版種類 統計의 急增된 趨勢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多幸으로 생각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不過 5年前인 71年度만 하더라도 年間 2,900種 밖에 안되던 出版量이 最近 5年사이에 年間 2배, 3배의 大幅 增加추세를 보임으로써 昨年에도 9,225種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今年에 와서는 지난 9月末 統計가 이미 9,460種 線을 넘어서었으므로 今年末에 1萬臺를 突破할 것이 確實視되는 것입니다.

저희 出版界는 이와 같은 出版種數의 增加現象을 우선 大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理由는 오늘 날 우리 나라의 出版이 産業化 情報化時代에 발맞추어서 그 機能이 細分化되고 高度化된 發展의 現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出版界는 여러 분께서 이미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努力은 不足합니다. 첫째 여러 분께서 恒常 忠告해 주시는 바와 같이 出版을 國民文化 向上의 莫重한 位置에서 더욱 科學化하고 精選化하는데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出版의 最終目標은 한 사람의 讀者라도 더 늘리는데 있는 것으로 圖書館 機能의 擴大에 그 依存度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圖書館 施設의 擴充을 위한 은 國民의 理解와 積極적인 協力關係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出版量의 年間 1萬種 突破의 이 時點이 圖書館界와 出版界의 發展에 一大 歷史的 轉換의 계기가 되기를 念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대회가 계획하신 대로 有終의 美를 거두실 것을 빌고 祝辭를 가름합니다.